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인간탄환 볼트 "3관왕에 도전한다"

송고시간 | 2008-08-17 01:36



장현구 기자
기자 페이지

<올림픽> 인간탄환 볼트 "3관왕에 도전한다"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9초69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딴 괴물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짓궂었다.

자신을 소개하는 장내 아나운서의 코멘트가 끝나자 양손을 길게 내뻗으며 우승을 예고케 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결승선을 코 앞에 두고는 자신을 추격하는 경쟁자가 거의 없자 본부석에 자리 잡은 카메라를 향해 양손을 벌리는 세리머니로 완벽한 우승을 자축했다.



그는 새 역사를 창조한 뒤 "오직 이기려고 여기 온 것 뿐이고 그 일을 해냈다. 내가 (종전) 세계기록 보유자인데 새 기록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였다. 전광판을 보기 전까지 세계기록을 경신한 줄은 몰랐다. TV로 레이스를 다시 보니 내가 봐도 놀랍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무척 기쁘다"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그는 곧바로 진지한 태도로 돌아서더니 "이제 18일부터 시작될 200m에 초점을 맞추겠다. 400m 계주까지 3관왕을 하고 싶다"며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조국 자메이카에 남뿔통틀어 올림픽 100m 첫 금메달을 선사한 볼트는 경기 후 브루스 골딩 총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기도 했다.

볼트는 "내가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었고 모두가 나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총리가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볼트는 '9초69라는 숫자에 대해 "불가능한 건 없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항상 바뀌고 있다. 스타트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 자신의 진화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결승 레이스에서 9초95로 개인 통산 41번째 9초대 기록을 뒀으나 5위에 머문 '무관의 제왕' 아사파 파월(26.자메이카)은 "누구도 볼트를 막을 수 없었다. 젊은 그는 무척이나 폭발적이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밤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레이스를 펼쳤고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며 축하했다.

메이저 대회에서 금메달을 못 따는 징크스가 반복된 것에 대해 파월은 "그토록 바라던 메달을 못 때 무척 충격을 받았다. 만약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며 아쉬운 감정을 길게 내뿜었다.

cany9900@yna.co.kr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마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 관련기사

<올림픽> 게이 "100m 탈락해 무척 실망스럽다"

<올림픽> 총알도 바람도 넘어선 '번개' 볼트

-올림픽- 두차례 금빛 함성..장미란.볼트 세계新

<올림픽> 9초6 시대..인간 한계 어디까지

<올림픽> 무너진 단거리..미국, 시작부터 충격패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7 01:36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1개월 만

尹당선인 "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물가상승 장기화 대비해야"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57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1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계약사/제휴문의